

경제포커스

■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

구문모(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 강남지역의 특성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 강남지역의 특성*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sjchoo@khu.ac.kr

I. 논의의 배경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그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충무로에서 강남지역으로 제작사, 인력, 자본이 이동하는, 이른바 영화산업의 강남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있음
 - 개봉 영화 제작사의 충무로(서울 중구) 점유 비율은 43.6%(1996)에서 21.3%(2000)로 감소, 강남지역(서울 강남구, 서초구)은 30.6%(1996)에서 70.5%(2000)로 증가함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영화 제작 및 배급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8개 업체 중에서 33개(68.8%)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음
 - 영화산업의 불을 타고 신설되는 업체의 대다수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영화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의 부흥과 연계되어 등장하게 됨

* 이 글은 주성재(2006)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수정·가필한 것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박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서울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 단순 클러스터에서 혁신체계로의 탈바꿈? (서울지역혁신연구회 편, 서울의 지역혁신체계 제5장, 2004) 등

- <결혼이야기(1992)>, <쉬리(1999)>, <친구(2001)>, <올드보이(2003)>, <태극기 휘날리며(2004)>, <왕의남자(2005)>, <괴물(2006)> 등이 모두 강남지역이 위치한 제작업체들에 의하여 제작됨
- 대도시 내에 형성되는 산업클러스터의 하나로서 영화 제작·배급업체들의 서울 강남 지역 집중 현상을 적절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벤처생태계와 생산체계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형성, 학습과정의 공간 등 클러스터 분석의 틀, 강남지역의 소비 지향성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시용함
 - 한국 영화산업의 독특한 성장과정과 최근의 부흥 특성, 관련업체와의 협력, 인력 및 자원 조달 등 제작과정이 공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
- 전반적인 추세를 알기 위한 통계조사와 제작업체의 실질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 충무로와 강남지역의 영화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함
 - 영화제작자들의 공간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

II. 한국 영화산업의 입지적 특성

- 한국 영화산업의 서울 집중도는 매우 높으며,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 8711)과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서비스업(8712) 업체수의 서울 집중도는 1995~2004년 기간에 각각 76.9%에서 81.3%, 69.5%에서 74.7%로 증가함(<표 1> 참조)
- 서울 내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에 있어 소위 충무로(중구 명동, 필동 및 인근 종로구)는 감소 또는 정체, 강남지역(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양재동)은 두 배 가까운 증가를 경험함(<그림 1> 참조)
 - 1995년 종로구에 등장한 업체들은 영화제작의 새로운 세대로서 충무로에서 약간 벗어난 종로3가, 비원, 명륜동 등에 자리 잡은 업체들을 나타냄
 - 1995년 서초구(서초동, 양재동 등)에 나타난 업체들은 강남대로의 벤처빌딩 또는 포이동의 영상·디지털산업 집적지에 입지한 업체들을 나타냄

- 2004년 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에 크게 증가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은 방송국을 둘러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을 나타냄
- 영화 제작과 배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의 70% 정도(48개 중 33개)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집계됨
- 강남의 소비 중심인 로데오거리와 학동4거리를 둘러싼 도산대로, 학동로, 언주로 일대가 이들 업체들의 주요 집중지역임(<그림 2> 참조)

<표 1> 한국 영화산업의 입지 변화 (1995~2004)

(단위 : 개, %)

구 분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8712)			
	1995		2004		1995		2004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전 국	515	100.0	940	100.0	59	100.0	91	100.0
서 울	396	76.9	764	81.3	41	69.5	68	74.7
중구·종로구	75	14.6	49	5.2	11	18.6	9	9.9
강남구·서초구	171	33.2	302	32.1	14	23.7	31	34.1

주: 각 산업 괄호안의 네 자리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사업체총조사보고서」, 1995, 2004.



(a) 1995년

(b) 2004년

<그림 1> 서울 내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입지분포

자료: 통계청, 「사업체총조사보고서」, 1995, 2004.



<그림 2> 주요 영화 제작배급사 위치

Ⅲ. 영화제작업체의 집적 요인과 과정

1. 창업 및 입지선정 과정

- 영화제작업체의 창업은 독립·자생적 창업, 기존 업체로부터의 분리창업(spin-off) 또는 영역 확대, 대기업의 조직 확장으로 인한 창업 등 그 경로가 다양하지만, 어떠한 창업의 과정이라도 영화 제작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는 제작업체의 초기 입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영화산업이 충무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형태로라도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창업함
- 그러나 창업의 장소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상징성과 지명도를 제공해주는 의미가 더 컸음
 - 이미 영화관에서 직·간접적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인맥, 생존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영화관련 업체가 모이지 않았던 강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강남지역에 신설되는 독립기업 또는 분리신설기업은 이러한 장소의 상징성과 지명도가 크게 작용하는 창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사무실 이전 시에도 강남지역을 우선 고려하게 됨
 - 2000년대 이후 창업한 기업이 충무로에 자리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임

2. 생산체계 및 관련 업체와의 연계

- 영화제작은 여러 기능 간에 밀접하게 연계된 단기적인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호흡이 맞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은 영화제작의 성공을 좌우하게 됨
 -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기획단계, 사전준비, 제작, 촬영, 후반부 작업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전개됨
 - 프로젝트 팀의 구성에 있어 계량화된 능력이나 생산성보다는 인맥이나 업계의 평판을 중요시하게 됨
- 이러한 특성은 서울 내부에서 충무로와 강남지역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함
 - 정해진 틀이나 생산연계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과 목적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네트워크라는 특성상, 서울 내부의 장소 차이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음
 - 녹음, 현상, 편집, 필름, 자막, 카메라장비, 소품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영화 관련 업체의 강남지역 집중도가 그리 높지 않음
- 창업투자사는 영화관련 기능 중에서 강남지역으로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임
 - 주요 창업투자사의 대부분이 강남지역에 집중함
 - 창업투자사와 영화제작사는 어느 한쪽의 주도보다는 상호 영향의 과정을 겪으면서 강남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영화제작사 대표들은 투자사와의 양호한 접근성이 투자자 물색에 유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낌

3.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영화업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할 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영화업계가 창조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이를 위한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특성을 표출함
- 사회적 자본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특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입지적 성향은 제작자가 처한 개인적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남
 - 개인적 친분을 중요시하는 제작자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특성을 필요로 함
 - 독자적인 제작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핵심 집적지점에서 떨어져 입지 가능
 - 출신대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강력한 학연의 관계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대체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집적이 필요 없게 만들기도 함
- 영화제작사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중요하지만 그 강력한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
 - 영화관련 주제들에 대한 난상토론, 제작스태프나 관련업체, 또는 배우에 대한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워크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음
 - 핵심적인 정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지키며, 영화 내용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학습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4. 인력자원의 조달

- 영화제작사들의 인력은 프로젝트를 단위로 매우 유연하게 이동하는 것이 특징임
 - 업체간 인력의 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각종 분야의 인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당연시하며, 이러한 정보교환을 위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함
- 인력의 유연한 이동과 그 정보교환을 위한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강남지역으로 업체의 집적을 유도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음

- 업체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함
- 정보의 흐름이나 인력의 실질적 이동에 있어 단지 서울과 그 주변지역이라는 공간으로서 충분하고 굳이 '강남'이라는 소규모 공간에 집중할 필요 없음

5. 제도적 요인

- 영화업계의 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집적의 힘(institutional thickness)은 거의 없음
 - 제작자, 감독, 배우, 음악작곡가, 조명감독, 촬영감독, 시나리오작가 등 각 기능으로 나뉘어 진 20여개의 협회는 공동의 개발이나 작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친목도모, 연대의식 제고 등의 차원에서 결성되어 운영됨
 - 각 협회들이 구성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가 교환되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영화 제작지원, 투자조합 출자,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며, 각 제작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혜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됨
- 영화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의 성과로는 1990년대 말 강남지역에 벤처빌딩을 육성하여 영화사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분양을 유도한 사례 정도임

6. 충무로와 강남지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으로서 충무로와 강남지역에 대하여 제작자들은 영화제작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두 지역을 차별할 만한 조건의 차이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충무로나 강남에 영화업체가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일 뿐, 서울 내에서의 입지는 '랜덤'하게 결정되며 선도기업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함
- 입지평가를 위한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표 2> 참조)

- 사무실 확보 및 임대료, 교통, 인력수급, 관련업체, 지명도 등의 항목에서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비강남지역의 만족도가 다소 높음
- 인력조달, 협력, 같은 부문에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 장소의 지명도 등 영화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 충무로의 우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표 2〉 영화제작자들의 각 입지지역에 대한 평가

구 분	만족도 평균 ¹⁾		만족업체 비율(%) ²⁾		
	강남지역	비강남지역	강남지역	비강남지역	p
사무실 확보 용이	3.25	3.67	41.7	66.7	0.317
사무실 임대료	2.67	3.00	16.7	16.7	1.000
교통 편리	3.33	3.67	50.0	66.7	0.502
인력수급 용이	3.25	3.67	25.0	50.0	0.289
편의시설 구비	3.42	3.33	50.0	33.3	0.502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3.83	4.00	66.7	83.3	0.457
동종, 유사업체의 집중	3.83	4.00	66.7	83.3	0.457
지원기관, 교육기관과의 접근성	3.00	3.00	16.7	16.7	1.000
투자 및 금융자본 조달	3.67	2.83	58.3	16.7	0.094
정보취득 용이	3.83	3.83	66.7	50.0	0.494
지명도 높음	3.75	4.33	58.3	83.3	0.289
관련협회 지원	2.67	2.83	0.0	16.7	0.146
정부지원 편리	2.25	2.83	0.0	16.7	0.146

주: 1) 매우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만족 5로 하여 평균값을 낸 것임

2) 전체 업체 중에서 만족과 매우만족이라고 평가한 업체의 비율임. p는 강남지역과 기타지역의 만족업체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할 때 오류를 범할 카이제곱 확률값 임

3) 강남지역은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등에 있는 12개 업체, 기타지역은 중구, 종로구 등에 있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설문조사

○ 강남지역은 투자·금융자본과 편의시설 및 정보취득의 입지요인에서 우위를 나타냄

- 투자·금융자본의 조달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며, 만족업체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강남지역이 갖는 편의시설과 정보취득의 이점은 소비지향의 장소인 강남이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관객의 취향이나 소비패턴의 유행과 같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영화업체들의 입지에 있어 영화제작의 생산체계와 관련된 국지화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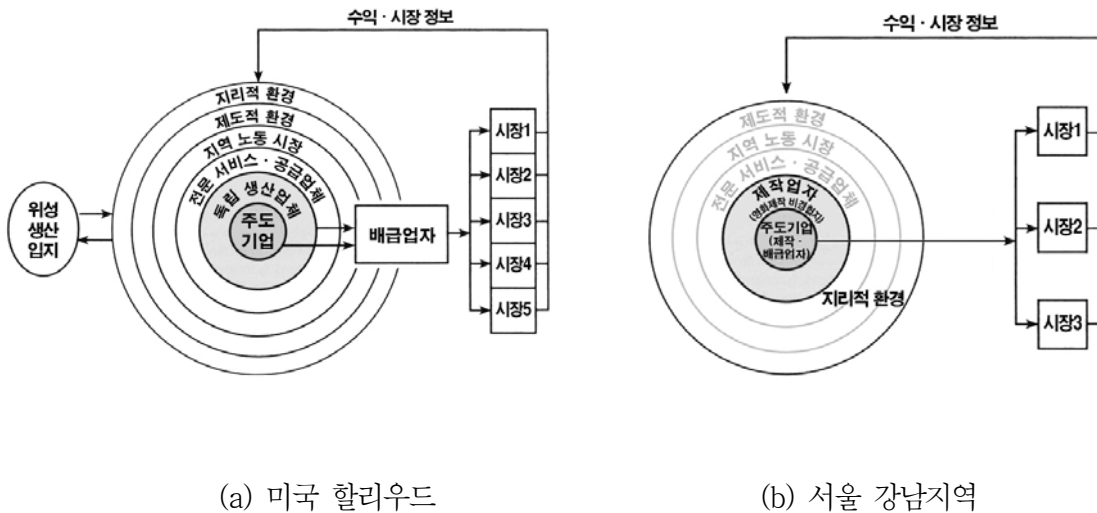
보다는 '강남'이라는 공간이 제공해주는 도시화경제의 요소들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임

IV. 종합적 논의

- 앞선 분석을 종합해볼 때, 서울 강남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영화산업 집적지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화된 기능과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탄탄한 생산체계보다는 영화관련 인력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느슨하게 형성된 집적지(loosely-articulated cluster)'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국지화경제의 측면에서는 제작사 사이, 또는 제작사와 관련 업체 사이에 형성되는 비거래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y)이 중요함
- 귀금속·보석산업과 제화산업의 집적지와 비교해볼 때, 서울 강남지역에 집적된 영화업체들에게는 생산체계의 연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됨
 -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보석 산업체간에 제조기능과 도·소매기능의 밀접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주성재, 2004; 이수연, 2003)
 - 서울 성수동의 제화산업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업체간 전후방연계, 생산기술, 디자인, 정보·지식의 흐름 등을 통한 동반발전의 혁신환경이 창출됨(박래현, 2005)
- 서울 강남에 영화제작업체가 집중하는 데에는 생산의 환경으로서 이곳이 제공해주는 혜택, 즉 도시화경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보의 획득과 트렌드 파악이 유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영화제작의 분위기가 강남지역 고유의 정서와 일치함으로써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배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서울 강남에서 도시화경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화된 업체들로 구성된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미국 할리우드가 두터운 층의 전문화된 서비스와 공급업체, 지역노동시장,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그림 3>의 (a)),

- 서울 강남지역에는 영화제작 관련 기능들이 상호 학습, 의사소통 및 지식거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추구할 만큼 성숙되지 못함(<그림 3>의 (b))



(a) 미국 할리우드

(b) 서울 강남지역

<그림 3> 영화산업 생산구조 비교

출처: (a)는 Scott(2005), p.48; (b)는 이를 변형하여 필자 작성

- 서울 강남지역의 영화산업 생산구조는 영화제작사와 이들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시장으로 구성됨
 - 영화제작사 중에는 영화제작의 경험이 있는 업체와 제작을 준비 또는 시도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영향력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와 공급업체는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창업투자사만이 이들 제작사들 주위에 존재함
 - 강남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은 영화제작 인력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배태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영화시장은 차별화되어 있으나, 이것은 미리 나뉜 시장이라기보다는 각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는 우연의 요소가 가미된 시장들임
- 생산체계의 연결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이 특정지역을 지향하는 것을, 영화산업의 특수성과 관련된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

- 영화제작이 갖는 원천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시장 내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기존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결속력 있는 프로젝트 팀이 운영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짐
 -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단기간으로 움직이는 영화제작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팀원들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 집적을 추구함
 - 영화산업의 구조재편과 세대간 차별화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소재와 구성, 그리고 제작의 방법과 관행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함
 - 영화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자본투자의 거대화로 인하여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부문간 수직계열화와 네트워킹이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 기업들은 새로운 사무기능의 중심인 강남에 사무실을 위치하게 됨
- 영화산업과 관련된 다음 이슈들은 후속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서울'이라는 규모의 공간에 대한 집적의 설명과 서울 중에서도 강남 또는 충무로라는 소규모 공간에의 집적에 대한 설명을 정교하게 분리하여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 중에서 영화산업만이 갖는 독특한 집적의 과정을, 문화산업의 다른 특정 분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문화산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집적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집적지를 정책적,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박래현, 2005, “서울시 제화산업의 집적 특성 및 혁신환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0(6), pp.653~670
- 이수연, 2003, 종로 귀금속 및 보석 산업의 집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주성재, 2004, “서울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 단순 클러스터에서 혁신체계로의 탈바꿈?,” 서울지역혁신연구회 편, 서울의 지역혁신체계 제5장, pp.89~104.

- 주성재, 2006,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3호, pp.245~266 (2006).
- Scott, A. J., 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Scott, A. J., 2005, *On Hollywood: The Place, The Indust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